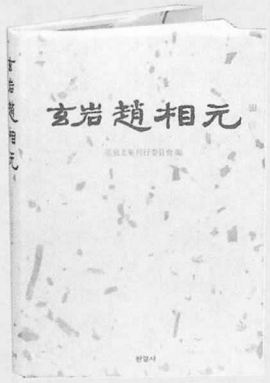


추모문집간행위원회 엮음
현암사/A5신/432면/비매품

외길 고집한 한 '책바치'에 바친 헌사

조상원 추모문집《현암 조상원》출간돼

지난해 5월 27일 88세를 일기로 타계한 출판인 현암(玄岩) 조상원을 추모하는 글을 묶은《현암 조상원》(현암사)이 출간됐다. 생전에 현암과 가까이 지냈던 지인과 최덕교 창조사 대표, 윤형두 범우사 대표를 비롯한 선후배 출판인, 이어령, 이동철을 비롯한 현암사 필자 등 그와 인연을 맺은 87명이 고인을 추모한 글이 담겨 있다.

현암은 해방 직후인 1945년 대구에서 시사종합지《건국공론》을 창간하는 한편 6·25 전쟁 와중에 현암사를 창업, '현대판《경국대전》'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령집인《법전》을 편찬했다. 이후《육당 최남선 전집(전15권)》을 비롯해《한국미술오천년》,〈현암 신서〉시리즈 등 숱한 명저를 펴내기도 했다.

이 책에는 스스로를 '책바치'라 칭하며 오로지 출판이라는 외길만을 고집했던 현암의 열정과 출판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현암을 '영원한 편집자'이자 '완벽주의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근면하고 성실했다고 전한다. 최덕교 창조사 대표는 추도사〈바위에 뜻을 심고, 책과 55년〉에서《법전》을 42판이나 내는 동안 어김없이 최후 교열을 보던 현암의 성실한 모습에서 놀라움을 느꼈다고 술회한다. 현암사에서《허사사전》을 펴낸 김원중 건양대 교수는〈진정한 장인정신의 소유자〉에서 출판인으로서의 투철한 직업의식을 보여준 현암을 묘사하고 있다. "사전은 자주 개정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 저자뿐만 아니라 출판사의 임무"라며 "사전은 적어도 5년에 한번 정도는 개정판을 내야 해"라고 말하는 현암에게서 투철한 직업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양문길 전 현암사 편집주간이 쓴〈전설로 남은 편집자 정신〉은〈현암신서〉의 탄생 배경을 밝힌 글이다. 여러 이유를 들어 출판사 직원 전부가 반대한〈현암신서〉기획을 현암이 밀어붙여 단행본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일화와 판권란이 책의 맨 앞장으로 오게 된 사연을 소개한다. "출판 편집자는 독창적인 기획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참신한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현암의 '편집자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인간 조상원'을 살펴볼 수 있는 글들도 수록돼 있다. 박소리 전 출협 출판부장이 쓴〈매사에 철저했던 '절약정신'〉에는 공무로 일본 출장을 갈 때마다 아침 식사를 거저 주고 잠을 잘 수 있는 값싼 여관을 정해두고 그곳에서만 고집스럽게 묵었다는 현암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근검절약 정신이 몸에 밴 현암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법전》의 법제사적 의미를 고찰한 서울대 최종고 교수의 논고〈현암과《법전》〉등도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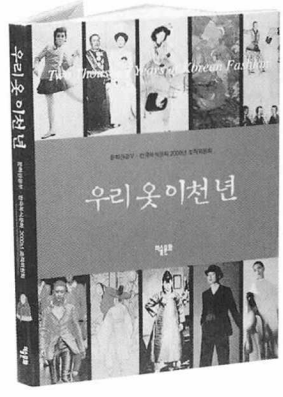
이 책은 한 선구자적 출판인에게 바치는 헌사지만 여러 출판인들과 출판에 '발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글을 통해 한국 출판이 걸어온 발자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역사서'기도 하다. – 최갑수 기자

각계의 고증 · 연구 거쳐 완성한 한국 복식 변천사

《우리 옷 이천 년》 나와

2천년에 걸친 한국 복식 문화가 한 권의 책에 담겨 나왔다. 7명의 의류학자, 패션디자이너, 고고학자 등이 문헌, 회화, 유물 등을 토대로 고증과 연구를 거쳐 완성한《우리 옷 이천 년》(미술문화)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통 복식과 양복의 유입으로 변화된 개화기 이후부터 현대의 복식문화에 이르기까지 두루 조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복식 구조는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 형태다. 고조선 이래 수많은 외세의 압력과 침입으로 다른 나라의 복식문화가 들어와 우리나라의 복식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세부적인 변화가 있었을 뿐 민족 고유의 복식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개화기에 이르러 양복 등 활동성 있는 서양 의복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복식 문화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서양 복식이 정착된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옷의 '유행'에 민감해졌고, 이제는 유행의 맹목적 추종에서 벗어나 옷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문화관광부 · 우리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지음
미술문화/B5/190면/15,000원

이 책에는 이런 한국 복식의 흐름과 양상에 대한 설명이 짤막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옷뿐만 아니라 머리 모양, 신발, 장신구 등 전반적인 복식상도 다룬다. 각 설명마다 풍부한 컬러 도판이 실려 있어 복식의 색과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이 책의 출간은 단지 우리 옷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우리 복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김장근 기자